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슈미트하우젠 교수,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즈루미 대학),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

이름만 대도 종량감이 느껴지는 세계 불교학계의 석학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는다.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대회(11월 12~13일), 제5회 현대불교문화연구원 국제 학술대회(11월 13일), 인도철학의 국제 학술 발표대회(11월 18~19일) 등 국제 학술대회가 11월에 집중적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슈미트하우젠 교수에게 몰려 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이름 자체로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식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 1963년 24살의 젊은 나이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베트어 번역, 한문 번역 등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한 문헌학적 연구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11월 18~19일 동국대 다문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인도철학 국제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한다. 슈미트하우젠 교수 외에도 초기불교 연구에서

국제원효학회 등 11월 국제학술대회 집중

외국불교학자 방한 줄이어 ...



◇기무라키요타카 교수



◇로버트 버스웰 교수



◇슈미트하우젠 교수

'불교에서 보는 채식' 슈미트하우젠 발표 관심 기무라 교수, 불교학 연구회서 기조 강연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인 노리토시 아라카미 오타니 대학 교수, 인도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제 저명 학술지에 등록된 <저널 오브 다크 드라마>지의 편집장인 아저스틴 도타가라 인도 다르마람 대학 철학부 학장, 중관학 전공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마크 시더리츠 교수, 인도 바나라스 힌두 대학 K.K. 미슈라 학과장 등이 방한한다.

발표 주제들도 흥미로운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불교에서의 채식주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아라카미 교수는 '전쟁-평화, 경제-환경, 세속-정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는 중국 불교사상 중에서 대화사상의 대가이다. 국내에도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기초 구조'라는 책이 번역 출판될 것을 정도 지난 7월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도 참여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기무라 교수는 11월 9일 '불교와 다원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다.

11월 12~13일 열리는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대회(원효전서) 영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의 원효학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자리다. <원효전서> 영역 사업에는 주제 발표를 맡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해 세계전지문화지도협회(ICCA) 회장 루이스 탱카스터 교수(버클리대) 등 국내·외의 불교학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케다 로신 일본 고마자와 대학 교수 등 천태 분야 학자들은 11월 13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열리는 제5회 천태 국제학술대회에서 모인다.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장 노엘 로베르 파리 국립고등학원 교수, 존 오언스턴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등이 발표 예정.

이에 앞서 30일 성철스님 탄신 90주년 기념 성철선사상연구원 학술회의에는 중국선종사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 고마자와 대학 이시이 슈도 교수가 참석해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에 대해 발표한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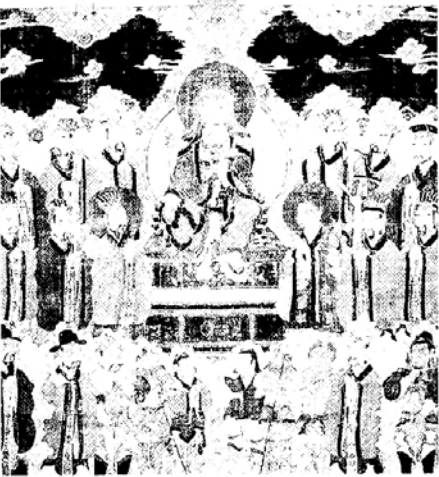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⑤

민간불화의 등장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의 차이,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려불화의 경우 궁중 및 귀족 발원의 불화인 반면, 조선불화는 궁중 및 귀족 발원뿐만 아니라 민간 발원의 불화가 조성된다는 점이다. 전통 회화에 상류 계층에서 향유한 일반 회화가 있고 민간인들의 취향에 맞춘 민회화가 있는데, 불화에도 왕족이나 상류 계층에서 발원한 불화가 있고 민간인들에 의하여 조성된 민간불화가 있다. 궁중 혹은 귀족 불화에서 민간 불화로 확산되어 불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불교 판화와 16세기 마애에 그린 불화에 나타난

이 불화의 민간적인 특징은 먼저 바탕으로 삼은 마애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친 마애 그리다 보니 붓질이 원활치 못해 정교한 장식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형상의 표현에서도 좀더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4등신의 필박한 몸매에 부리부리한 눈썹이 그 것이다. 이 불화의 권속들은 유난히 눈에 힘이 들어 있다. 어떤 상은 사천왕상처럼 눈이 튀어 나왔고, 어떠한 상은 날카로운 눈매를 간직하고 있다. 다만 지장보살의 인자한 눈과 동자의 따뜻한 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상을 찡그리면서 강



◇지장시왕도(1586년, 일본 코쿠분지(國分寺) 소장). 짙은 눈매와 매서운 눈매가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민간불화이다.

한 눈빛을 발산하고 있다. 그런데 매서운 눈매에서는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그 과장된 모습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역시 민간 발원의 그림이라 해학이 그 형상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해학 하면 우리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떠올린다. 김홍도의 '서당'을 보면, 서당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하다. 심지어 점잖은 훈장 어른조차도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풍속화도 기본적으로 서민의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질박·자유로운 조형... 새로운美感

조선초 '지장시왕도'엔 해학 넘쳐

다. 궁중과 귀족의 화려한 취향과 달리 민간의 질박하면서도 자유로운 조형으로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1586년에 조성된 지장시왕도일본 코쿠분지(國分寺) 소장이 조선초기 민간 발원 불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불화의 대시주자는 김홍도(金弘道, 1470~1520)로, 김홍도는 불화가 아닌 것 같고, 오손에는 여자로 보인다. 이 불화의 시주자는 일반 서민들이었다. 이는 이전의 불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기존의 왕실 또는 귀족 발원의 불화에 민중 발원의 불화까지 제작된 것이다.

에 해학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학은 풍속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미술, 그것도 조선시대 민간 미술의 전면에 걸쳐 드러나는 특징이다.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 사대부 회화와 민간 회화를 구분 짓는 특징을 들려면 무엇보다도 해학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궁중 회화에 종단한 근엄함이나 사대부 회화에 풍겨나는 아취는 보이지 않지만, 민간회화에는 자유분방함이 넘친다. 대부분의 민간 회화는 우스꽝스러운 변형, 재미있는 표정 등을 통해서 민간 특유의 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조계종 종조 혜능으로 해야”

법산스님, 선학회 학술대회서 제안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를 도의(7~825) 국사가 아닌 중국 선종의 육조(六祖)인 혜능(638~713)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선학회 제21회 학술대회에서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학장)·사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며 같이 제안했다.

법산 스님이 문제 삼은 것은 '조계종'이라는 종명과 종조, 종통, 종지 사이의 혼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종조와 종지의 불일치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법령집>의 '종헌' 전문과 제1조, 제6조에는 도의 국사를 종조로, 보조지눌(1158~1210)과 태고보우(1301~1382) 국사를 종통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산 스님은 <조계종사> 등을 보면 조계

“종명·종조·종통·종지 사이에 혼란”

종의 종지는 보조의 종지임을 알 수 있다"며 "종조의 정신이 곧 종지인데, 도의 국사가 종조이면 그에 맞는 종지를 신앙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다.

종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선맥은 육조 혜능의 양대 제자인 청원행사(7~740)와 남악회양(677~744) 가운데 남악회양을 계승한 마조도일(707~786) 계통의 선법을 잇고 있다는 게 종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종의 5가가 골고루 전해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법산 스님은 "한국에서의 조계는 곧 육조 혜능을 의미하고 조계종은 곧 선종이라는 대명사다. 그렇다면 종조 역시 혜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고문서 파손예방대책 절실

프랑스 보존과학 전문가 3명 내한 강연

문화재 보존은 문화적 관념의 결과지만 보존하는 방법은 이제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수준은 아직 프랑스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 기술면에서 뒤처지는 게 사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선진 보존과학 기술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경기도박물관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와 공동으로 25일 한 불 보존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수해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로 하고 있는 프랑스 지역보존연구소(Arc-Nucl earth) 자크 뒤센 소장, 고문서보존과학연구원 베르트랑 라베 드린느 원장, 프랑스 박물관연합회 연구복원센터 미셀 브뤼 연구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고문서의 효율적인 보존처리 기술과 예방대책을 소개한 베르트랑 라베 드린느 원장의 발표였다. 라베드린느 원장에 따르면, 해중 구제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사실상 해결된 상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공공이류 퇴치나 산화 방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작품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파손예방정책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 적절한 전시, 보관 환경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자체의 재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명, 열 및 수분 계측기, 공기의 질, 건물 요건 등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셀 브뤼 연구부장은 핵물리학을 이용한 이온 빔을 사용해 그림이나 첩보, 청동제 발골품의 재질을 분석하는 투브르기초분석가속기(ACLA)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방법은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을 시료의 표본추출과 같은 파괴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정밀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크 뒤센 소장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앙연구기관 박물관협회 연구복원센터를 비롯해 3개가 있다. 또한 20여 개의 복원 전문 지역단위 센터가 있어 문화재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 전문가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번 국제학술강연회에서 김규호 호암미술관 연구원 등 4명이 국내의 보존사례를 발표했다.

조명·열·수분계측기·건물요건 등 적절한 전시·환경 요소 파악 필수적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Advertisement for Marriage Research Institute. Text includes: -연인- 어느새 가을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한가로운 걸음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들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밟으며 행복한 미소로, 얼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1호선 부천역 이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의원오미스빌 202호

Advertisement for Marriage Research Institute. Text includes: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無生子), 사무실: 032)654-5411, 휴대폰: 011)288-2944

배워 두서라 -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하게 되리라! 난치병 및 괴질 조정, 지도자 모집

Advertisement for a health seminar. Text includes: 서울과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속성반 개설 앞으로 에이즈 보다 더한 괴질까지도 약 침 효 등의 도움없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자 되므로, 당신 스스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예언된 학문이며 지도자를 양성할 시기가 되어 전수 하는 것입니다. 대상: 본 능력을 전수 받고자 하는 분,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진 사람, 너 및 제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시려는 분,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 교육과정: 비만조정법(부작용없음), 난치병조정법, 속효조정법으로 고난도 핵융합방법, 항생제로 통제 불가능한 괴질 등 속효조정법. 문학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의 능력은? 1. 하루 1시간씩 6일을 조정해주면 OK, 2.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일지라도 살이 쭉쭉 빠져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는다, 3. 감기도, 전신무력증도, 압도, ?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4. 공해로 변형된 비정상 세포가 몸밖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알게된다. ※ 자연의 순리에 의한 노화는 어쩔수 없었으나 그의 외부의 인연에서 오는 치료불능의 제질병 및 괴질까지 당신은 능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자 되므로 당혹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문의처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人體適用研究學會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Advertisement for Joint Pain Relief. Text includes: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냉 습 진,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Advertisement for Buddhist Dharma Training. Text includes: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인내: 기 간: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본 연수원, 지도교수: 김철환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